

#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 :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lec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Sense of Community

박은정 · 이유리 · 이성훈\*

건강가정컨설팅연구소 · 건강가정컨설팅연구소 · 안양대학교

Park, Eun Jung · Lee, Yu Ri · Lee, Sung Hoon\*

Research Institute of Healthy Family Consulting ·

Research Institute of Healthy Family Consulting ·

College of Liberal Arts, Anyang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s on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lec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subjects used in this study were 2,218 6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the third wave sample of the 2012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For data analysis, the 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 by Baron and Kenny (1986) was performed and the Sobel test was carried out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mediation effects. The main results of the present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sub-component factors of achievement value, mastery goal orientation, behavioral control, academic time-management revealed to have a partial mediation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lec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Second, the sense of community also showed to have a partial mediation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lec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a viewpoint to deeply observe the problem of parents' neglect in connection with children's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and sense of community, and can be used as practical data to develop various programs for the benefit of improving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Key words** : neglec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ense of community, academic achievement

### I. 서론

아동 및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부모의 주된 관심이 되고 있으며, 이 시기 자녀의 중요한 발달과업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기의 경우 학업기술이 발달하기 시작

하고, 이 시기의 학업성취는 아동기 이후 중·고등학교의 학업성취에 기반이 되기 때문에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Chung et al., 2011; Eun, 2009). 이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아동의 학업수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입학 이후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해 사교육에 투자하기 시작한

\* Corresponding Author : Lee, Sung Hoon

Tel : +82-31-467-0936 ; Fax : +82-31-463-1386

E-mail : shlee@anyang.ac.kr

© 2015,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All rights reserved.

다. 하지만, 아동기의 학업성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의 양육태도이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양육자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일반적,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태도 및 행동으로 자녀의 인지적·정서적·성격적 측면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학업성취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Kang, 200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결과에 의하면, Kordi와 Baharudin(2010), Mozfair(2014)는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는 강한 상관성을 가지는데, 부모의 권위적 태도는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데 반해 허용적 태도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Arevalo et al.(2014)은 부모의 발달기대, 양육행동, 훈육, 학업성취 간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들 변수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고, 아동의 학업성취를 위해 양육과 훈육 등 부모의 양육행동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선행연구에서도 아동이 지각한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보고하였는데, 부모 모두에서 애정을 높게 지각한 아동일수록 학업성취 수준이 높다고 밝혔고, 정서지능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를 부분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You & Hong, 2010).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또는 자녀에게 무관심하거나 방치하는 부정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와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Kim, 2014; Kim & Yang, 2014; Kwon et al., 2013; Park, 2014; Seo et al., 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 및 학교생활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방임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2015)에 따르면 2014년 현재 아동 학대신고는 총 1만7791건으로 전년 대비 36.0%가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중복학대가 4,814건(48.0%), 방임 1,870건(18.6%), 정서학대 1,582건(15.8%), 신체학대 1,453건(14.5%), 성학대 308건(3.15) 순으로 나타나 방임이 정서적 및 신체적 학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과 2013년도에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의 학대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방임이 과반수의 많은 분포를 보여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아동의 사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양육태도 중 방임이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Central Agency for Child Protective Services, 2015).

부모의 방임은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충분히 발

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수적인 양육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학대와 달리 기본적인 처벌이나 훈계조차 제공하지 않고, 신체, 정서, 지적발달 등 자녀의 전반적 발달에 무관심하고, 지지 등이 부재한 것을 말한다(Huh, 2000; Kim, 2003). 실제 아동기에 경험한 방임은 인지적 결핍, 사회적 위축, 또래와의 상호작용 어려움, 감정조절능력 부족, 공격성, 학업성취 부족 등 다방면의 내재화 및 외현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아동기 이후 청소년, 성인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Cheon & Choi, 2013; Hildyard & Wolfe, 2002; Jo & Hyun, 2005; Lamont, 2010; Lee & Hoaken, 2007). 부모의 방임과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방임수준이 높을수록 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불안 정도가 높아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An et al., 2014; Lim, 2014; Na et al., 2006; Park, 2014; Park & Lim, 2014), 방임을 경험한 아동·청소년일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낮으며(An et al., 2014; Kim & Yang, 2014; Park, 2014; Seo et al., 2012), 부모의 방임과 교우관계 및 교사관계 간 부적 상관성(Cheon & Choi, 2013; Kim & Yang, 2014; Kwon et al., 2013)을 갖는 것 뿐 아니라 방임을 경험한 아동의 학교적응유연성과 사회적 지지 수준은 방임을 경험하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Jwa, 2009). 또한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한 청소년의 학업유능감은 현저히 낮아지고, 방임 또는 방임과 학대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학교부적응,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아동의 신체적,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 행동 등의 모든 발달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heon & Choi, 2013; Kwon et al., 2013; Lamont, 2010; Yang et al., 2014). 이처럼 방임은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과 학교생활적응 및 학업성취 등 전반적인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방임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 중 학업성취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부모의 방임으로 인한 낮은 학업성취는 정신건강, 학업적 효능감 및 학습동기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생활 부적응, 진로결정, 삶의 만족도 등에 부차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에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자기조절학습(self-regulated learning)은 학생의 학업성취를 예측하는 중요한 기제로서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주목받고 있다(Zimmerman, 2008). Zimmerman과 Kitsantas(2005)는 학습자의 자기조절기술

과 전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과정에 대한 안내와 방법 뿐 아니라 학업수행과 평가에 대한 학습자의 능력이라고 규정하였다(as cited in, Effeney et al., 2013). Dignath와 Büttner(2008)은 자기조절학습기술을 조성시키기 위해서는 교사들은 장기적으로 자기조절학습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 및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Effeney et al.(2013)은 형식적인 학교에서의 학습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학습에서도 자기조절학습전략과 자기조절습관은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자기조절학습 경험을 통한 자기조절학습전략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양시켜야 함을 시사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조절학습과 학업성취에 대한 기존연구(Mahmoodi et al., 2014; Sardareh et al., 2012; Turan & Demirel, 2010)를 보면,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 Turan과 Demirel(2010)은 자기조절학습기술은 학업성취와 관련성이 있으며, 학습자의 자기조절학습전략은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는 학업성취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Sardareh et al.(2012)은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생의 학업성취는 강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고 밝혔고, Mahmoodi et al.(2014)도 자기조절학습전략과 학습자의 학습동기 간 정적 상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학습자의 학습동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자기조절학습기술 적용 및 함양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의 선행연구결과에서도 일맥상통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최근 학습자의 개인내적변인으로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관련된 경험적 연구(Lim, 2014; Park & Ko, 2014)에서 자기조절학습은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학업성취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사교육보다 더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학업성취가 높은 집단은 낮은 집단보다 자기조절학습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고, 자기조절학습전략 훈련 효과성 연구에서도 자기조절학습전략은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학습동기 및 학습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 사이에서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볼 때(Kim, 2012; Lee & Chung, 2014; Lee & Park, 2009; Lim, 2013) 자기조절학습능력은 학업성취에 중요한 변인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가 부모의 양육태도로 밝혀지고 있다(Lim, 2013). Lee et al.(2014)와 Lim(2013), Min et al.(2012)에 의하면 부모의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기조절 학습능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밀관성은 좋지 못한 학습습관을 형성한다고 밝히면서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부모의 양육태도 또는 부모의 방임과 자기조절학습능력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밝힌 선행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자기조절학습능력과 밀접한 개념인 자기주도적학습 및 자기조절능력에 대한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olman et al.(2006), Hong(2001)과 Lim(2014)는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및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Jo와 Hyun(2005)은 어머니의 방임을 많이 경험한 자녀일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어머니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아동기에 형성되어야 할 자기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부모의 방임은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공동체의식은 구성원 간 느끼는 귀속의식 또는 유대감을 말하는 것으로 공동체의 유지 발전을 위해 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져야 할 책임과 권리의식, 보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와 가치관을 의미한다(Kim & Kim, 2012). 이러한 공동체의식은 아동기에 가족, 학교 등에서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내면화하여 적극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아동에게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Heo & Lee, 200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소비하고 있으며, 학업성취에 초점을 맞춘 생활로 인하여 공동체의식이 발달되지 못하고 있는 편이다(Shin, 2015). 때문에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단순히 학업성취 증진의 목표가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려와 학교현장 및 공동체 생활에서의 구성원 간 공동체의식 함양이 필요하다(Shin, 2015).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데, 부모는 역할 모델로 작용하여 자녀에게 시민 참여의 가치와 규범을 제공하거나 자녀들의 참여 행동을 강화할 수 있으며(Fletcher et al., 2000; Zaff & Michelsen, 2001, as cited in Kang & Jang, 2013), 부모의 수용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공동체의식의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Kang & Jang, 2013). 또한 부모감독, 부모애정, 합리적 설명의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특히 부모의 합리적 설명과 부모감독은 자녀의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Oh, 2013). 한편 공동체의식이 강한 청소년은 학교생활을 포함한 생활만족도가 높고, 학업성취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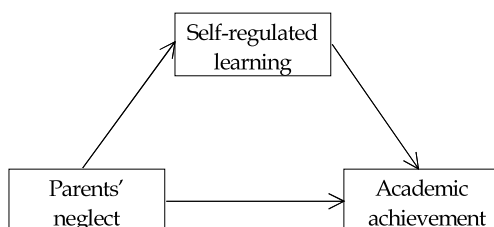
(Kim et al., 2006). Wighting et al.(2009)은 공동체의식과 학업성취 간 정적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고, 학생의 긍정적 교육결과인 학업성취 증진을 위해서 교사와 학교 관리자들은 공동체의식 함양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외에 공동체의식은 학교생활적응과 정적 관련성(Cho, 2007; Choi & Moon, 2013; Kang, 2014; Kim, 2014; Kim & Nam, 2011)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 공동체의식, 학업성취의 세 변수는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관련성이 있고, 학업성취와도 관련이 있다. 즉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 그리고 부모의 양육태도, 아동의 공동체의식과 학업성취 각각의 세 변인의 관련성을 토대로 볼 때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의 관계를 매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공동체의식이 낮은 아동이 학업성취도가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부모의 방임과 자녀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6학년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행하는 시기로 타학년에 비해 교과내용의 양이 많고 어려워져 학업에 대한 어려움과 흥미 등을 잃게 되는데(Son & Yang, 2013) 비해 학업의 중요성 및 학업에 중점을 둔 생활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이들의 학업성취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초등 6학년은 중학교로 진학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전환기이기 때문(Park & Yoon, 2013)에 초등 6학년 시기 학교 및 공동체 생활환경에서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적응은 중학교 입학 이후의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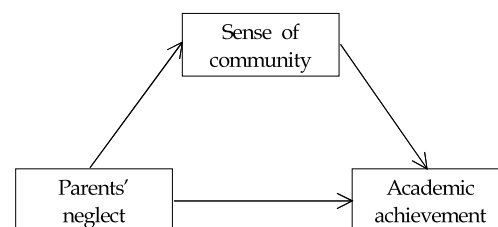
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부모의 양육태도 중 부모의 방임 및 학대에 대한 아동의 인지가능성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욱 커지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부모와의 갈등 증폭과 다양한 문제가 파생되는 점(Kim, 2015)을 고려할 때 부모방임과 관련된 문제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업성취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모 양육태도 중 감독, 애정, 합리적 설명 등에 초점이 맞추어졌고, 부모의 방임은 대부분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에 한정되어 이루어졌다.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에 주목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밝힌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고(Kwon et al., 2013; Yang et al., 2014), 특히 부모의 방임을 학대의 한 가지 유형으로 처리하여 연구(Kim & Park, 2004; Kim & Yeum, 2012; Na & Chung, 2007)가 진행되어 온 제한점이 있다. 또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핀 선행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 학업성취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파악했을 뿐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매개변인을 통하여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공동체의식, 학업성취의 관계성을 바탕으로 부모의 방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나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경우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의 하위 구성요인들을 세분화하여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의 방임이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영역 중 어떤 하위 구성요인이 학업성취의 증진으로 이어지는지 그 메커니즘을 파악함으로써 아동의 학



[Figure 1]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neglect, self-regulated learning, and academic achievement.



[Figure 2]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s' neglect, sense of community, and academic achievement.

업성취를 증진시키기 위한 학습기술향상 프로그램이나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와 연구모형([Figure 1]과 [Figure 2] 참조)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부모방임은 KCYPS에서 Huh(2000)과 Kim(2003)의 아동학대 문항 중 일부를 참고하여 연구진이 제작한 총 4 문항이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보다 직장이나 바깥일에 치중하고, 자녀의 신변이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못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부모의 방임은 매우 그렇다(1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이고, 신뢰도는 .81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2) 자기조절학습능력

자기조절학습능력은 Yang(2000)에 의해 개발된 자기조절학습능력 측정도구 문항 중 김세영(2006)이 요인분석을 통하여 재구성한 문항을 수정, 보완한 총 18개의 문항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성취가치(7문항), 숙달목적지향성(2문항), 행동통제(5문항), 학업시간관리(4문항)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성취가치는 학교 공부가 나의 미래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학습의 가치를 지각하는 것이다. 숙달목적지향성은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다. 행동통제는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다. 학업시간관리는 학습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간계획을 세우는 것이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전체 신뢰도는 .92이고, 하위영역별 각각 성취가치 .90, 숙달목적지향성 .74, 행동통제 .70, 학업시간관리 .84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였다.

3) 공동체의식

공동체의식은 Kwon(2004)의 민주시민의식연구의 설문지를 참조하여 연구진이 작성한 것으로 총 4문항이다. 구체적으로 주변의 친구나 이웃, 가난한 나라, 지구환경보호

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2년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원자료 중 초등학교 6학년 아동 총 2,218명(남학생 1,167명, 여학생 1,051명)이다.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은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부모의 학력을 살펴보면, 부의 학력은 대졸이상 집단이 약 절반(48.7%)정도를 차지하고, 고졸 집단이 40.3%, 전문대졸 집단이 11.0%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학력은 고졸이하 집단의 비율(46.0%)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졸이상(37.2%), 전문대졸 집단(13.7%) 순으로 나타났다. 취업모는 3/5(64.1%)이상으로 비취업모(35.9%)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아버지의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취업(98.5%) 중이다.

2. 연구도구

1) 부모의 방임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2,218)

Variables	Classification	N(%)	Variables	Classification	N(%)
Father's Edu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821(40.3)	Mother's Education	under highschool graduate	1,020(46.0)
	college graduate	225(11.0)		college graduate	284(13.7)
	over university graduate	993(48.7)		over university graduate	771(37.2)
Father's Job Type	employed	2,009(98.5)	Mother's Job Type	employed	1,322(64.1)
	jobless	31( 1.5)		jobless	741(35.9)

\* Total number of non responses due to differences in specific variables.

에 관심을 갖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금,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정도에 관한 것이다. 공동체의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동체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동체의식의 신뢰도는 .82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다.

#### 4) 학업성취도

학업성취도는 지난 1학기 성적으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의 5과목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다. 매우 못했다(1점)부터 매우 잘했다(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이 좋은 것을 의미한다.

###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공동체 의식, 학업성취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 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분석을 이용하였다. 또한 매개효과의 효과성을 파악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Ⅲ. 연구결과

### 1.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공동체 의식, 학업성취의 관계

부모의 방임과 자기조절학습능력, 공동체 의식, 학업성취의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성별에 따른 각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 t-test를 실시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Table 2>와 같이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영역인 숙달 목적지향성과 행동통제에서만 유의한 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 전체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성취가치, 학업시간관리의 하위영역, 공동체 의식, 학업성취는 성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아동의 성별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아동대상으로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여도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음으로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공동체 의식, 학업성취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Table 3>과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방임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r=-.36$ )과 공동체 의식( $r=.26$ ), 학업성취( $r=.26$ )와 부적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방임은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영역과도 전반적으로 부적 상관관계( $r=-.34 \sim -.26$ )를 나타내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은 공동체 의식( $r=.50$ )과 학업성취( $r=.47$ ) 간 높은 정적 상관성을 보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하위영역은 공동체 의식( $r=.44 \sim .39$ ) 및 학업성취( $r=.41 \sim .37$ )와도 다소 높은 정적 관계를 보였다. 공동

<Table 2> 성별에 따른 부모의 방임, 자기조절학습능력, 공동체 의식, 학업성취의 차이분석(N=2,218)

	Male (n=1,167)		Female (n=1,051)		t
	M	SD	M	SD	
Parents' neglect	1.63	.62	1.63	.56	.090
Self-regulated learning	2.89	.52	2.86	.49	1.55
Achievement value	3.12	.60	3.11	.56	.33
Mastery goal orientation	2.96	.74	2.77	.72	6.06***
Behavioral control	2.74	.54	2.69	.53	2.17*
Study time management	2.64	.70	2.65	.68	.49
Sense of community	2.86	.68	2.88	.60	.71
Academic achievement	3.69	.79	3.64	.74	1.49

\* $p<.05$ , \*\*\* $p<.001$ ,

(Table 3) Correlations among Parent's Neglect,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Sense of Community, and Academic Achievement(N=2,218)

	1	2	3	4	5	6	7	8
1. Parents' neglect	1							
2. Self-regulated learning	-.36**	1						
3. Achievement value	-.34**	.88**	1					
4. Mastery goal orientation	-.27**	.78**	.63**	1				
5. Behavioral control	-.29**	.80**	.55**	.57**	1			
6. Study time management	-.26**	.81**	.58**	.54**	.55**	1		
7. Sense of community	-.26**	.50**	.44**	.43**	.39**	.42**	1	
8. Academic achievement	-.26**	.47**	.41**	.38**	.41**	.37**	.27**	1

\*\* $p < .01$

체의식과 학업성취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 $r=.27$ )가 나타났다. 정리하면, 부모의 방임은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공동체의식과 학업성취에 부적 관계를 가지며,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은 학업성취와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 2.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3단계 매개회귀분석(Three-step mediated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였으며, 매개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와 같다.

1단계의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매개변인인 아동의 자기조절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36,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26, p<.001$ ).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자기조절학습능력이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 $\beta=.44, p<.001$ ),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며, 그 영향력이 2단계( $\beta=-.26, p<.001$ )보다 3단계( $\beta=-.11, p<.001$ )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은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기조절학습능력의 각 하위영역의 매개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취가치의 매개역할을 분석한 결과, 1단계의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매개변인인 성취

가치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34,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26, p<.001$ ).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성취가치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 $\beta=.36, p<.001$ ),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며, 그 영향력이 2단계( $\beta=-.26, p<.001$ )보다 3단계( $\beta=-.14, p<.001$ )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나 성취가치는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목적지향성의 경우를 보면, 1단계의 부모의 방임이 숙달목적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beta=-.27, p<.001$ ), 2단계에서 부모의 방임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26, p<.001$ ). 3단계에서는 숙달목적지향성이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33, p<.001$ ), 부모방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며, 영향력이 2단계( $\beta=-.26, p<.001$ )보다 3단계( $\beta=.17, p<.001$ )가 더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아동의 숙달목적지향성이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행동통제의 경우, 1단계에서 부모의 방임이 행동통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beta=-.29, p<.001$ ), 2단계에서도 부모방임은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26, p<.001$ ). 3단계에서는 행동통제가 학업성취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beta=.36, p<.001$ ), 부모의 방임이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영향력이 2단계( $\beta=-.26, p<.001$ )보다 3단계( $\beta=-.16, p<.001$ )가 적은 것으로 밝혀져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에서 행동통제는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Table 4〉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lec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N=2,218)

Step	Model	B	SE	$\beta$	$R^2$	F	Sobel's test
1	parents' neglect → self-regulated learning	-.31	.02	-.36***	.13	331.09***	
2	parents' neglect → academic achievement	-.34	.03	-.26***	.07	160.48***	
3	parents' neglect self-regulated learning → academic achievement	-.14 .66	.03 .03	-.11*** .44***	.24	335.87***	-14.00***
1	parents' neglect → achievement value	-.33	.02	-.34***	.12	292.93***	
2	parents' neglect → academic achievement	-.34	.03	-.26***	.07	160.48***	
3	parents' neglect achievement value → academic achievement	-.18 .48	.03 .03	-.14*** .36***	.18	248.37***	-12.50***
1	parents' neglect → mastery goal orientation	-.34	.03	-.27***	.07	175.47***	
2	parents' neglect → academic achievement	-.34	.03	-.26***	.07	160.48***	
3	parents' neglect mastery goal orientation → academic achievement	-.22 .35	.03 .02	-.17*** .33***	.17	226.36***	-10.42***
1	parents' neglect → behavioral control	-.26	.02	-.29***	.08	202.82***	
2	parents' neglect → academic achievement	-.34	.03	-.26***	.07	160.48***	
3	parents' neglect behavioral control → academic achievement	-.20 .52	.03 .03	-.16*** .36***	.19	254.23***	-11.27***
1	parents' neglect → academic time-management	-.30	.02	-.26***	.07	158.82***	
2	parents' neglect → academic achievement	-.34	.03	-.26***	.07	160.48***	
3	parents' neglect academic time-management → academic achievement	-.23 .36	.03 .02	-.18*** .32***	.16	216.19***	-9.74***

\*\*\* $p < .001$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시간관리를 보면, 1단계의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매개변인인 학업시간관리에 미치는 영향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beta = -.26, p < .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beta = -.26, p < .001$ ).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학업시간관리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 $\beta = .32, p < .001$ ),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며, 그 영향력이 2단계( $\beta = -.26, p < .001$ )보다 3단계( $\beta = -.18, p < .001$ )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학업시간관리는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의 모든 하위구성요

인들은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추가적으로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하위영역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Sobel test 통계량이 유의한 수준( $Z = -14.00 \sim -9.74, p < .00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하위영역인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는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앞서 자기조절학습능력의 매개효과분석 방법을 동일하



게 적용하여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Table 5 참조>). 분석결과 1단계의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매개변인인 공동체의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beta=-.26, p<.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은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쳤다( $\beta=-.26, p<.001$ ). 3단계에서는 매개변인인 공동체의식이 종속변인인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고( $\beta=.22, p<.001$ ), 독립변인인 부모의 방임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력도 유의하며, 그 영향력이 2단계( $\beta=-.26, p<.001$ )보다 3단계( $\beta=-.20, p<.001$ )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공동체의식은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Sobel test 통계량이 유의한 수준( $Z=8.14, p<.001$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아동의 공동체의식은 부모의 방임과 학업성취도를 부분적으로 매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 및 공동체의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하위 구성요인인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는 모두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유의미하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

니라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매개하여 학업성취에 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부모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Kwon et al., 2013; Lamont, 2010; Yang et al., 2014)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조절학습능력에 영향을 미치는데, 과잉기대, 과잉간섭, 비일관성 등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낮은 자기조절학습 및 좋지 못한 학습습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연구(Lee et al., 2014; Lim, 2013; Min et al., 2012), 자기조절학습능력이 학생의 학업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밝혀진 선행연구(Kim, 2012; Lee & Chung, 2014; Lee & Park, 2009; Lim, 2013; Sardareh et al., 2012; Turan & Demirel, 2010)를 각각 입증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자기학습능력의 하위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성취가치는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즉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부모의 방임은 아동의 성취가치를 통해 학업성취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못하면 이를 경험한 자녀는 학교 공부가 나의 미래에 유용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성취가치를 갖지 못하고 학업성취가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숙달목적지향성도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쓰지 못할수록 아동은 무엇인가 배운다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숙달목적지향성이 낮아지고 결국 학업성취가 낮아진다는 것이다. 행동통제도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다. 즉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아동은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스스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행동통제를 하기가 어려워져 학업성취가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학

<Table 5> The Mediating Effects of Sense of Commun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Neglec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N=2,218)

Step	Model	B	SE	$\beta$	$R^2$	F	Sobel's test
1	parents' neglect → sense of community	-.28	.02	-.26***	.07	158.31***	
2	parents' neglect → academic achievement	-.34	.03	-.26***	.07	160.48***	
3	parents' neglect → academic achievement	-.26	.03	-.20***	.11	141.25***	
	sense of community	.27	.03	.22***			-8.14***

\*\*\*  $p<.001$

업시간관리도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아동은 스스로 학습목표를 분명히 하고 시간계획을 세워서 관리하는 능력이 낮아지고 결국 학업성취의 저하를 가져온다.

또한 자기조절학습능력은 전체적으로도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서 부분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기의 부모가 자녀보다 직장이나 바깥일에 치중하고, 자녀의 신변이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못하면 아동이 스스로 학습의 가치를 지각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공부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공부에 집중하며 학습목표를 분명히 하여 학업시간관리를 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형성하기가 어려워지고 나아가 이러한 성취가치, 숙달목적지향성, 행동통제, 학업시간관리 등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낮을수록 아동의 학업성취 수준이 낮아진다. 다시 말해 부모의 방임이 낮을수록 아동은 스스로 학습의 가치를 지각하고 배움의 즐거움을 알고 공부에 집중하며 학업시간관리를 하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지고, 자기조절학습능력이 높아지면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점차 맞벌이 부부의 비율이 높아지고 시간압박이 높아지는 현대사회에서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바깥일로 바쁘더라도 아동기 자녀의 신변이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는다면 아동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의 향상을 통해 학업성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에서 아동의 공동체의식은 부분 매개효과가 나타나 부모의 방임이 아동의 학업성취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또한 공동체의식을 매개하여 아동의 학업성취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부모의 방임이 높을수록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낮아지고, 이러한 낮은 공동체의식이 아동의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공동체의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Oh(2013), Kang과 Jang(2013)의 연구결과와 공동체의식이 강한 학생의 학업성취가 높다고 밝힌 Kim et al.(2006)의 연구, 공동체의식과 학업성취는 정적 상관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진 기존결과(Wighting et al., 2009)를 종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방임이란 부모가 자녀보다 직장이나 바깥일에 치중하고, 자녀의 신변이나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거나 신경 쓰지 못하는 것이다. 즉 방임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아동기에 긴밀한 상호작용을 유지해야 하는 부

모가 자녀에게 관심을 갖거나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므로 부모가 방임적일 때 자녀는 부모자녀 간 유대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만의 힘으로 어려울 때 타인의 도움을 받고 상호호의존하는 경험이 미흡할 수 있다. 또한 부모의 방임이 높은 아동들은 전체 집단 내에서 구성원으로서의 본인의 책임과 권리의식을 갖는 공동체의식이 낮아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의 방임을 경험한 아동은 주변의 친구나 이웃, 가난한 나라, 지구환경보호에 관심을 갖고 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자원봉사활동이나 기부금, 환경보호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공동체의식수준이 낮아지고, 이러한 공동체의식이 낮을수록 학업성취가 낮아진다. 다시 말해 부모의 방임이 낮을수록 아동의 공동체의식이 높아지고, 공동체의식이 높아지면 학업성취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공동체의식이 학업성취로 이어진다는 결과는 사회적으로도 개인이기주의가 팽배하고 공동체의식이 낮아지는 현 시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부모의 방임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의 학업성취를 향상시킬 수 있는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의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정책적 제안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방임에 대한 예방차원 및 긍정적 양육태도로의 변화를 위해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과 학교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부모교육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강화를 실시하고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의 관계에 대한 맥락적인 이해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강의현장에서 부모를 대상으로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마스크는 아동의 학업성취 면에서 부모의 방임의 심각한 영향력을 대두시키고, 정부에서는 방임의 기준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자녀와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이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부모는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방임 등의 부정적인 양육태도를 지양해야 하며, 부모의 방임이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을 낮춰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염두하고 취업 중인 부모는 직장생활로 인해 물리적으로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자녀입장에서 부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소홀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은 부모의 경우에도 아동기 자녀에게 결과 위주의 성적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신변과 학교생활에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의사소통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에서는 가정에서 방임에 노출된 아동을 파악하여 진단 한 후 이들의 학업적 측면에 도움을 주는 자기조절학습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학교 내 학습센터의 전문가를 배치하여 상담과 학습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해가는 전이과정에 있는 6학년 아동에게 효과적인 학업성취 향상 프로그램은 절실할 것이다. 아울러 아동기에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과 균등한 분배를 우선 가치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사는 학생들에게 공동체의식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시키며, 학생들이 공동체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학습수행활동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울러 공동체의식은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해서도 함양될 수 있으므로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시설, 청소년활동기관 등에서는 다양한 콘텐츠 구축과 더불어 이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6학년의 단일 학년에 국한되어 분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학령기 아동의 결과로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패널데이터를 2차 분석한 것으로 부모의 방임이 유형별로 보다 세분화되어 측정되지 못했다. 가령, 물리적 방임, 정서적 방임, 교육적 방임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구분되지 못하였고 방임시기, 방임기간, 방임수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방임과 관련된 보다 정교화된 측정도구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셋째, 부모의 방임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또는 정서적 변수를 찾는 연구도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의 방임과 아동의 학업성취 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이 매개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여 부모의 방임이라는 문제를 자녀의 자기조절학습능력과 공동체의식과 연관지어 더욱 심도 깊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주제어 : 방임, 자기조절학습능력, 공동체의식, 학업성취

## 참고 문헌

An, J. Y., Son, Y. E., & Nam, S. I. (2014). The effects of abuse and neglect from parents on children's

school adjustment: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Korean Youth Research Association*, 21(12), 261-284.

Arevalo, A., Kolobe, TH., Arnold, S., & DeGrace, B. (2014). Early childrearing practi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academic performance Mexican American children. *Pediatr Phys Ther*, 26(2), 214-220.

Central Agency for Child Protective Services (2015). *State of 2014 National Child Abuse*. Seoul: Division of Child Rights, Ministry of Health & Welfare.

Cheon, S. N., & Choi, E. Y. (2013). Effects of Neglect, After-school Program Satisfaction and Teachers' Support on Early Adolescents' Academic Competence and Peer Relationships. *J. of Human Ecology*, 17(1), 13-27.

Chung, I. J., Kwon, E. S., Park, H. S. (2011). Predictors and development outcomes of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trajector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4, 64-94.

Cho, M. J. (2007). *The effects which the group spirit could have the school life and academic achieve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Korea.

Choi, H. I., & Moon, Y. K. (2013). Impact of community spirits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5(6), 189-209.

Colman, R. A., Hardy, S. A., Albert, M., Raffaelli, M., & Crockett, L (2006). Early predictors of self-regulation in middle childhood.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4), 421-437.

Dignath, C., & Büttner, G. (2008). Components of fostering self-regulated learning among students. A meta-analysis on intervention studies a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level. *Metacognition and Learning*, 3(3), 231-264.

Effeney, G., Carroll, A., & Bahr, N. (2013). Self-regulated learning: key strategies and their sources in a sample of adolescent males. *Australian Journal of Educational and*

- Developmental Psychology*, 13, 58-74.
- Eun, H. G. (2009). The emotional intelligence and learning skill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14(1), 149-170.
- Fletcher, A. C., Elder, G. H., Jr., & Mekos, D. (2000). Parental influences on adolescent involvement in community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0, 29-48.
- Heo, I. S., & Lee, J. H. (2004). The study on adolescence's social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citizenship formation. *Studies on Korean Youth*, 15(2), 443-472.
- Hildyard, K. L., Wolfe, D. A. (2002). Child neglect: developmental issues and outcomes. *Child Abuse & Neglect*, 26(6-7), 679-695.
- Huh, M. Y. (2000). *The stud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arenting behavior inventory perceived by adolesc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 Hong, A. K. (2001). *The relationship among mother's child-rearing attitude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emotional intelligence*. Unpublished master thesis, 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
- Jo, O. J., & Hyun, O. K. (2005). Effects of mother's emo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and of child's capacity for self-regulation on child's depressive tendencie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3), 141-161.
- Jwa, M. G. (2009).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for children who experienced neglect on the adaptation and resilience at school, *Dong Kwang*, 105, 71-145.
- Kang, G. Y. (2014).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the sense of community of childre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competence.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8, 81-110.
- Kang, G. Y., & Jang, Y. M. (2013). A study on sense of community of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0(1), 97-123.
- Kang, H. S. (2001). The influence of sexes and scholastic self-conception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school careers of their fathers, and parent's ways of bringing up their children of scholastic achievements of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Mokpo National University*, 14(1), 249-261.
- Kim, H. G. (2014). The effect of perceived parental abuse and neglect and peer attachment on school life adjustment to children's gender.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10), 11-19.
- Kim, H. G. (2015).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on school life adjustment of children and parent's neglect/abuse as perceived by children according to gender and grade. *Korean Journal of Childcare and Education*, 11(1), 355-371.
- Kim, H. G., & Yang, S. K. (2014). The effects of parental abuse/neglect perceived by child and community awareness of child on school life adjustment according to child gender. *Journal of Korean Child and Education*, 10(5), 117-131.
- Kim, J. M., & Kim, T. K. (2012). The effects of youth experiential learning activities on community awareness, sense of community,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The 2nd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Conference Kit, 372-385.
- Kim, M. J., & Yeum, D. M. (2012). A meta-analysis for how the child abuse experience effect on the child's school adapta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43(1), 409-430.
- Kim, M. S., & Park, M. S. (2004). A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child abuse to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5(5), 29-40.
- Kim, S. M., & Nam, C. Y. (2011). The effects of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on sense of communit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 of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8(4), 225-242.
- Kim, S. W. (2003).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abused children's adjustment*. Unpublished master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Kim, S. Y. (2012). The difference of self-regulated learning with respect to achievement for the

- middle school students. *Secondary Education Research*, 60(1), 243-264.
- Kim, S. Y., Im, J. Y., Kim, S. W., Yoo, S. R., Choi, J. Y., & Lee, G. Y. (2006). *Korea Youth Development Indicators Survey I: Verification of Indicators for Measuring Results Part*.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Kim, Y. C. (2014). Impact of peer attachment, community spirit and multi-cultural acceptance on school life adaption in children. *Korea Contents Association Review*, 14(9), 321-331.
- Kordi, A., & Baharudin, R. (2010). Parenting attitude and style and its effect on children's school achievem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ical Studies*, 2(2), 217-222.
- Kwon, J. E., Lee, E. J., & Nho, C. R. (2013).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and peer relationship on the association between child abuse and neglect and school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42, 29-54.
- Lamont, A. (2010).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Australian Institute of Family Studies*, APRIL, 1-7.
- Lee, J. P., Jang, J. H., & Kwon, D. T.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study habit between the parenting style perceived by children and their study achievement.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4(2), 323-341.
- Lee, J. S., & Chung, Y. L. (2014). An analysis of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attitude toward science, science motivation,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and science achievement i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Science Education*, 34(5), 491-497.
- Lee, K. B., & Park, J. K. (2009). The effect of focused time management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y program on time management ability and academic motivation. *The Journal of Rehabilitation Science Research*, 27(1), 47-64.
- Lee, V., & Hoaken, P. N. (2007). Cognition, emotion, and neurobiological development mediating the relation between maltreatment and aggression. *Child Maltreat*, 12(3), 281-298.
- Lim, S. A. (2013). A longitudinal structur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mong parenting attitude,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y influencing student's school adjust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7(2), 229-247.
- Lim, Y. M. (2014). The effects of private tutoring expenses, parents' monitoring/affection, their children's learning value and self-regulated learning abilities on middle-school boys's and girls' academic achievement.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6(3), 113-131.
- Mahmoodi, M. H., Kalantari, B., & Ghaslani R. (2014). Self-regulated learning(SRL), motivation language achievement of Iranian EFL learners. *Procedia -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98, 1062-1068.
- Min, D. O., Kang, H. N., & Park, H. W. (2012).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go-resilience and study habit in terms of moderating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yles. *The Society for Cognitive Enhancement and Intervention*, 3(2), 65-79.
- Mozafari, S. (2014). Prediction of creativity and academic achievement child rearing styl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al Research*, 3(1), 166-176.
- Na, E. S., & Chung, I. J. (2007).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types of child abuse, depressive tendencies,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4), 35-49.
- Na, E. S., Chung, E. J., Lee, B. J., Kim, Y. S., & Kim, K. H.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abuse · neglect and children's academic achievement, 2006 Fall Joint Conference Kit of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187-193.
- Oh, M. S.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ing attitudes, teacher relationship, and peer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in middle*

- school students: Mediating effects of a sense of commun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Gwangju, Korea.
- Park, E. J., & Ko, J. W. (2014). The effects of private education patterns and study habits on academic achievement.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2(5), 443-456.
- Park, J. H., & Lim, Y. M. (2014).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ness to teacher and peer attachment on the relations between child maltreatment and neglect on adolescent'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1(3), 87-110.
- Park, K. W., (2014). The effects of parent's neglect and abuse on the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The mediating effects of social withdrawal.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1), 1-15.
- Park, S. H., & Yoon, C. H. (2013). The effects of personal and family variables on the school adjustment of 6th and 9th grade Korean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4(3), 147-169.
- Sardareh, S. A., Saad, M. R. M., & Boroomand, R. (2012). Self-regulated learning strategies (SRLS) and academic achievement in pre-university EFL learners. *California Linguistic Notes*, 37, 1-35.
- Seo, J. A. (2013).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on youth's school adaptation.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44(1), 135-164.
- Seo, J. A., Cho, H. S., & Chang, J. H. (2012).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youth's adaptation to school: Focusing on the effects of family social capital and community social capital. Seoul: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 Shin, H. S. (2015). Latent profile analysis on academic achievement, sense of community, and school happiness of elementary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28(1), 53-76.
- Son, H. G., & Yang, J. H. (2013). An in-depth look at sixth grade homeroom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30(2), 413-437.
- Turan, Z., & Demirel, O.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regulated learning skills and achievement: a case from Hacettepe university medical school. *Hacettepe University Journal of Education*, 38, 279-291.
- Wighting, M., Nisbet, D., & Spaulding, L. S. (2009). Relationships between sense of community and academic achievement: a comparison among high school student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Humanities*, 7(3), 63-73.
- Yang, H. L., Lee, J. E., & Han, K. J. (2014). The Effects of Adolescent's Exposure to Neglect on School Grades: Moderation Effect of Career Identity. *Social Science Studies*, 38(2), 41-62.
- You, M. Y., & Hong, H. Y.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attitudes toward child-rearing and academic achievement: The mediating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The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24(4), 915-937.
- Zimmerman, B. J. (2008). Investigating self-regulation and motivation: historical background, methodological developments, and future prospects.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45(1), 166-183.

Received 14 October 2015;

1st Revised 11 November 2015;

Accepted 26 November 2015